제228호(2025. 7. 2.)

www.krei.re.kr

KREI 농정포커스

2024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의 정주만족도 조사

김수린·최현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성주인 선임연구위원	061-820-2199	jiseong@krei.re.kr
내 용 문 의	김수린 연구위원	061-820-2036	slkim@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228호

2024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의 정주만족도 조사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5. 7.

발 행 인 한두봉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www.krei.re.kr
KREI 농정포커스
제228호(2025. 7. 2.)

2024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의 정주만족도 조사

김수린·최현우

요 약

농어촌 주민은 도시민과 비교해 거주 중인 지역에 대한 만족과 애착이 크지만 생활 여건은 더 열악한 것으로 평가

-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 대해 농어촌 주민이 평가한 행복감과 생활만족도는 도시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지역 소속감, 주민 교류도 더 높은 수준이었음. 그러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적절히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4대 부문(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별 만족도는 지난 10년간 도시에 비해 대체로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농어촌의 보건·복지 부문은 중요도가 높음에도 만족도가 낮아 최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도시와의 격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음. 교육·문화와 경제·일자리 영역은 보건·복지 부문과 비교해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만족 수준 역시 낮아 앞으로도 점진적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분류되었음. 정주기반은 4대 부문 중 농어촌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고 상승세가 현저해, 개선보다는 유지·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해당하였음. 특히 농어촌 주민 가운데 70대 이상 고령 농림어업인의 경우 삶의 질 4대 부문 중 정주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만족 수준이 가장 낮았음. 생활 여건이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요구됨.
- 향후 이주 의향이 있는 농어촌 주민은 이주 의향이 없는 주민과 비교해 주민 간 교류 수준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지역에 대한 행복감과 생활만족도, 지역 소속감 모두 더 낮은 수준이었음. 농어촌 주민의 이주 희망 이유 중 도시민과 마찬가지로 꼽은 직장·일자리를 제외한다면, 교육, 의료서비스와 같은 필수적인 사회서비스 여건이 지적되었음. 반면 도시민은 주택 문제 해결, 자연친화적인 환경에 대한 선호 등이 주요하였음.

읍부와 비교해 면부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 여건은 더욱 열악해, 농촌 내 격차의 고착화로 이어져

- 면부는 삶의 질 4대 부문(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모두 읍부와 비교해 주민이 평가한 만족 수준이 낮았음. 이 같은 경향은 조사 시작 이후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됨. 이는 농어촌 안에서도 읍면에 따른 삶의 질 격차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함.
- 삶의 질 4대 부문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는 병·의원 및 약국 접근성, 진료과목 다양성, 분만 의료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서, 교육·문화는 문화·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과 같은 문화·여가 향유 기회에서, 정주기반은 대중교통, 기초 생활서비스, 생필품·식자재 구입 등 기본적인 정주 여건에 대해 면부가 더 낮은 만족 수준을 보임. 경제·일자리는 읍면 모두 만족도가 가장 떨어졌는데, 지역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고, 다양한 일자리가 충분치 않으며, 일에 상응하는 소득 확보도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농어촌의 보다 취약한 인구 집단과 지역에 우선 초점을 맞춘 정책적 개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해야

- 삶의 질 4대 부문을 중심으로, 농어촌의 더 취약한 집단인 고령 농림어업인과 면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 노력이 요구됨. 이를 위해 열악한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와 ICT 기술의 활용,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확충, 주민 수요 맞춤 평생교육 확대, 공공서비스 거점시설 조성 및 교통서비스 연계, 지역맞춤형 모빌리티 프로그램 지원·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어메니티 기반 산업 육성, 지역 특화 벤처·창업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01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의 정주만족도 조사 개요

1.1. 조사 목적과 의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여건과 정주만족도 추이를 도시와 비교·분석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조사를 수행

- 2024년에는 10월 한 달 동안 전국 3,650명(농어촌 주민 2,650명, 도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됨.
  -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실태와 주민의 정주만족도 조사(이하 농어촌 정주만족도 조사)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여건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동 조사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범부처 종합계획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삶의 질 기본계획)과 연계해 그 성과를 검증·평가할 수 있도록, 도시 대비 농어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수준과 격차를 각 기본계획의 주요 영역 중심으로 파악함. 2024년 조사는 2020년부터 시행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마지막 기간에 수행되었음.
  - 동 조사는 주민의 체감도를 중심에 둔 평가가 가능하므로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삶의 질 변화 추이를 장기 추적함으로써 삶의 질 격차 해소, 지역소멸 방지 등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을 위한 발전 전략 수립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음.

표 1 **조사 대상 및 설계**

구분	농어촌 주민	도시민
조사 대상	전국 농촌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전국 도시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조사 지역	전국(제주 포함)	전국(제주 포함)
표본 크기	2,650명(읍 1,250명, 면 1,400명)	1,000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방문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방문조사
표본 추출 방법	지역별 할당 표본 추출	
표본오차(95% 신뢰수준)	±1.62%p	
조사 수집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주: 조사 수행은 전문 조사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함.
자료: 저자 작성.

1.2. 조사 설계

농어촌 정주만족도 조사 문항은 농어촌 주민이 체감하는 정주 여건과 만족도를 조사하되, 해당년에 시행 중인 삶의 질 기본계획과 연동되도록 영역을 구성

- 2024년 조사 문항은 크게 3개 영역(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전략 부문, 이주 의향)으로 구성됨.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은 전반적 만족도(5항목), 주관적 웰빙(6항목), 공동체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7항목)을 포함함. 각 항목은 단일 문항에 해당함.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4대 전략 부문은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 수준을 측정하며, 시의성 등을 고려해 문항이 추가되기도 함.
- 이주 의향은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을 떠날 의향과 시기, 이유 등을 조사함.

표 2 **2024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조사 주요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현재 행복감, 주관적 건강 수준, 거주 지역에서의 만족감, 마을 발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 등
	주관적 웰빙	현재 삶의 전반적 만족도, 어제의 행복, 근심, 걱정, 우울 수준,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 원하는 삶의 방식 추구 등
	공동체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지역 소속감, 거주 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 신뢰도, 이웃과의 관계, 이웃 간 도움,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과 어울림 등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전략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인식	4대 전략별 삶의 질 여건 만족도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부문별 세부 만족도
	4대 전략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중요도	전략별 중요도, 전략별 만족도
이주 의향	한 달 동안 주요 활동 반경, 이주 의향,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 시기, 이주 희망 이유 등	

주 1) 2018년부터는 연도 간 비교 용이, 조사 결과 해석의 일관성 확보, 응답자의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11점 척도(0~10점)를 사용하여 정주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고 있음. 이에 2018년 이전 자료와의 직접적인 만족도 점수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2) 제4차(2020~202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4대 부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제3차(2015~2019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는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7대 부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 9),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를 재구성.

본 연구는 2024년 농어촌 정주만족도 조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한 삶의 질 영역과 정책과제를 논의

-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의 전반적 생활 실태와 지역에 대한 인식, 이주 의향을 비교하고, 3장에서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부문별 만족도와 우선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한편 수요자 맞춤 개입을 위한 농어촌 주민 특성별 차이를 검토함. 4장에서는 4대 부문 세부 항목별 농어촌 내 격차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02

농어촌·도시 주민의 지역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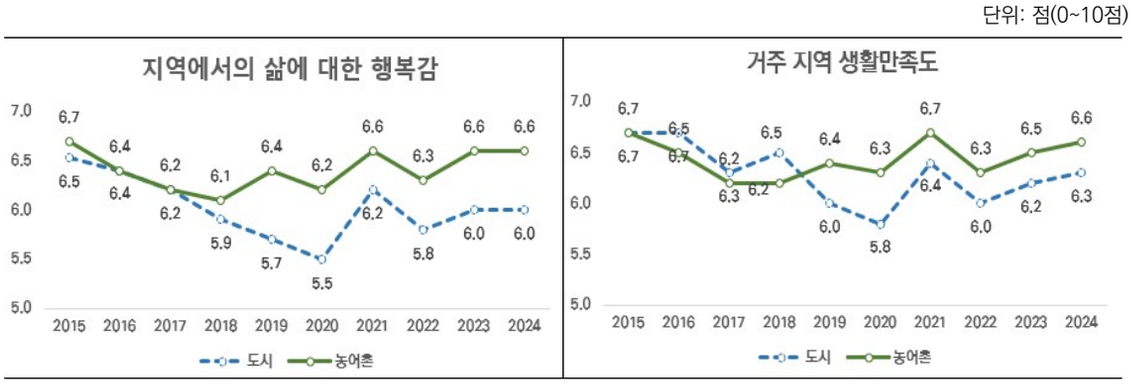
2.1. 지역에서의 행복감과 생활만족도

농어촌 주민이 지역에서 체감하는 '행복감'과 '생활만족도' 모두 도시민보다 근소하게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보통 수준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침.

- 2024년 기준,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행복감' 및 '거주 지역 생활만족도' 점수는 농어촌 주민(각각 6.6점)이 도시민(각각 6.0점, 6.3점)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10년 전과 비교해 모두 감소함.
  - 10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여 현재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의 행복감 점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보통(5점)보다 소폭 높은 6점대를 유지함. 다만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도시민보다 높은 경향이 유지되었음에도(농어촌 6.7점 → 6.6점, 도시 6.5점 → 6.0점) 도농 간 격차는 확대되었는데(0.2점 → 0.6점), 이는 농어촌 주민 대비 도시민의 행복감 수준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진 데에서 기인함.
  -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은 2019년을 기점으로 농어촌 주민이 도시민과 비교해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기 시작함. 2020년에 가장 큰 격차(0.5점)를 기록하였는데, 저밀도·분산 거주, 자연과 가까운 생활환경이라는 농어촌의 특성이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만족감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됨. 농어촌 주민의 거주 지역 생활만족감은 2021년 최고점(6.7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다가 2022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도시민과의 격차(0.3점)를 일정하게 유지 중임.

그림 1 행복감 및 거주 지역 생활만족도 변화 추이: 도농 비교

단위: 점(0~10점)



주: t-test 결과,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행복감, 거주 지역 생활만족도의 24년 도농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p<.0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2.2.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및 주민 교류

농어촌 주민은 거주 중인 지역에 대한 발전 전망과는 별개로 도시민보다 더 높은 지역 소속감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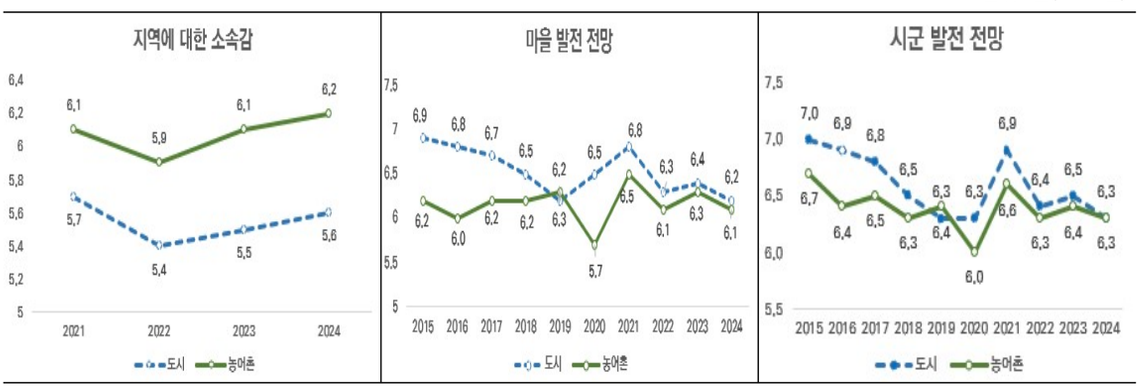
• 지역 소속감은 농어촌 주민이 도시민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에, 지역 발전 전망은 도시민의 감소 폭이 두드러지며 최근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함.

-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 모두 '22년 잠시 하락하였다가 증가세로 돌아서며 2024년 기준 각각 6.2점과 5.6점을 기록함. 이는 조사가 처음 시행된 2021년과 비슷한 수준임. 다만, 그 격차는 같은 기간 다소 증가해(0.4점 → 0.6점) 농어촌 주민이 여전히 지역에 대한 더 높은 애착을 보임을 알 수 있음.

- 지난 10년 동안 '마을/시군에 대한 발전 전망'은 소폭의 등락이 관찰되었으나 대체로 도시민이 농어촌 주민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 농어촌 주민이 자신의 거주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비교적 더 비관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민의 전망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최근 점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함. 구체적으로 '마을 발전 전망'은 농어촌 주민 2015년 6.2점 → 2024년 6.1점, 도시민 2015년 6.9점 → 2024년 6.2점으로, '시군 발전 전망'은 농어촌 주민 2015년 6.7점 → 2024년 6.3점, 도시민 2015년 7.0점 → 2024년 6.3점으로 각각 감소함.

그림 2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 추이: 도농 비교

단위: 점(0~10점)



주 1) 지역에 대한 소속감 문항은 2021년에 신설됨.
2) '24년도 기준 t-test 결과, 지역에 대한 소속감에서 도농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p<.00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농어촌 주민은 도시민과 비교해 지역주민 간 교류가 더 활발해

• 긍정적인 이웃 관계, 지역사회 활동 참여 수준 모두 농어촌 주민이 도시민보다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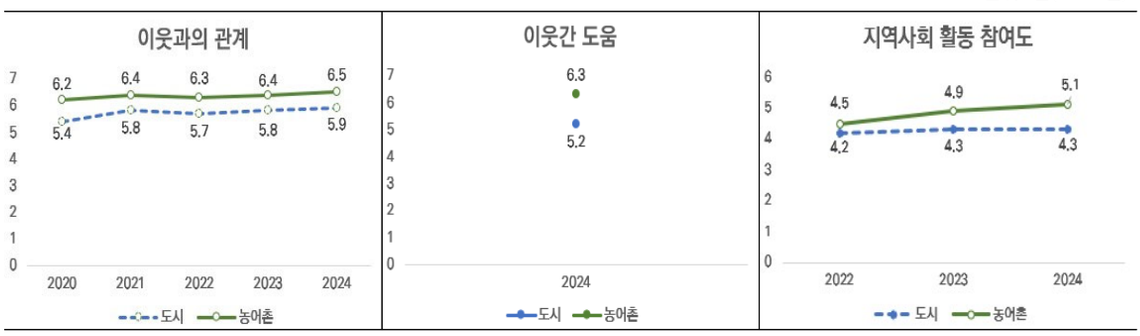
- '이웃 또는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문장에 동의하는 수준을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

농어촌 주민의 점수는 2020년 6.2점 → 2024년 6.5점으로, 도시민(2020년 5.4점 → 2024년 5.9점)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 또한, '필요할 때 이웃과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는 비율은 농어촌 주민(6.3점)이 도시민(5.2점)보다 더 높았음.

- '지역사회 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에 긍정적으로 답한 농어촌 주민의 점수는 2022년 4.5점 → 2024년 5.1점으로, 보통 수준(5점)까지 상승함. 이는 같은 기간 도시민(4.2점 → 4.3점)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두 집단 간 격차는 확대되었음(0.3점 → 0.8점).
- 이 같은 결과는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가 상대적으로 농어촌에 더 강하게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어촌의 강점으로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보존·유지해 나갈 필요성을 시사함.

그림 3 지역주민 교류 수준 변화 추이: 도농 비교

단위: 점(0~10점)



주 1) '이웃과의 관계' 문항은 2020년, '이웃 간 도움' 문항은 2024년,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문항은 2022년에 각각 신설됨.
2) '24년도 기준 t-test 결과, 지역주민 교류 수준의 모든 문항에서 도농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p<.00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2.3. 향후 이주 의향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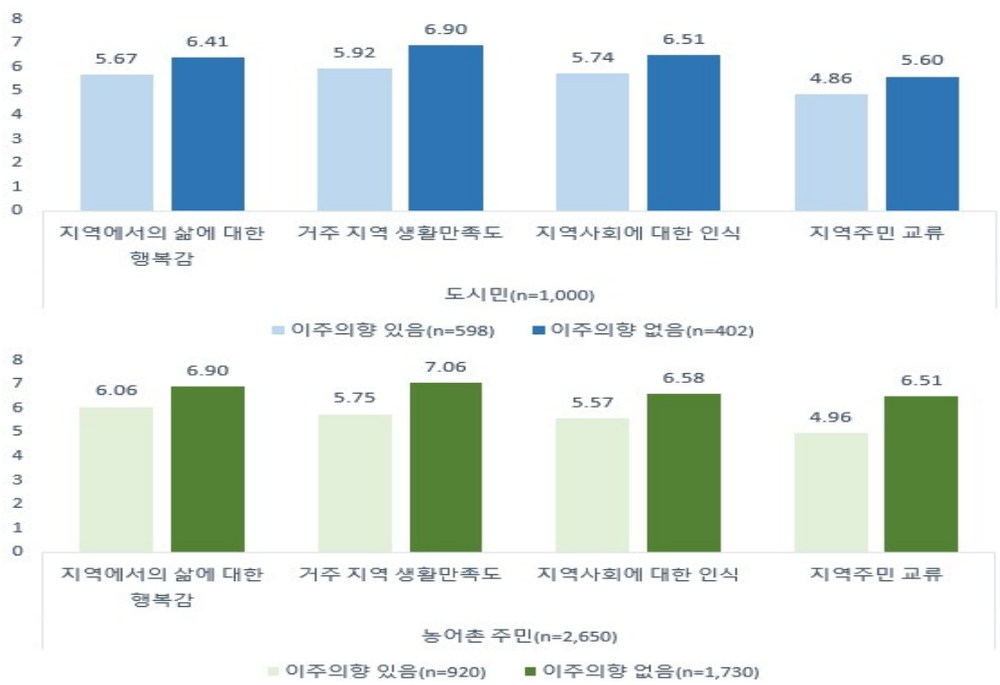
농어촌·도시민 모두 이주 의향이 없는 집단에서 현재 거주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가운데, 농어촌 주민에게는 '지역주민 교류' 수준의 격차가 가장 두드러져

- 향후 이주 의향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 점수 격차는 도시민보다 농어촌 주민에게 더 현저하게 나타남. 특히, 농어촌 주민은 이주 의향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주민 교류' 점수의 격차(1.55점)가 가장 컸음.
  - 농어촌 주민 중 이주 의향이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은 '지역주민 교류'에서 그 격차가 가장 컸는데, 이주 의향이 없는 농어촌 주민은 6.51점인 반면 이주 의향이 있는 농어촌 주민은 4.96점으로 보통 수준(5점)에도 미달함. 이는 농어촌 주민이 인식하는 지역주민 간 유대와 교류 수준이 그들의 이주 의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함. 다음으로 격차가 큰 항목(1.31점)은 '거주 지역 생활만족도'였음. 특히, 이주 의향이 없는 집단의 점수는 7.06점으로 전체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도시민의 경우 이주 의향에 따라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거주 지역 생활만족도'로 나타남(0.98점). 이주 의향이 있는 집단은 5.92점, 없는 집단은 6.9점이었음. 이주 의향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지역주민 교류'로, 이주 의향이 있는 집단 4.86점, 없는 집단 5.6점에 머무름.

그림 4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향후 이주 의향 유무별 정주만족도(2024년)

단위: 점(0~10점)



주 1) t-test 결과, 도시민의 이주 의향 유무별 정주만족도 모든 문항에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p<.001).
2) t-test 결과, 농어촌 주민의 이주 의향 유무별 정주만족도 모든 문항에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p<.001).

자료: 2024년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원자료를 분석함.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이 꼽은 이주 희망 이유에는 차이가 있어

• 직장·일자리를 제외하고 농어촌 주민은 교육·의료 접근성을, 도시민은 주택 문제를 가장 많이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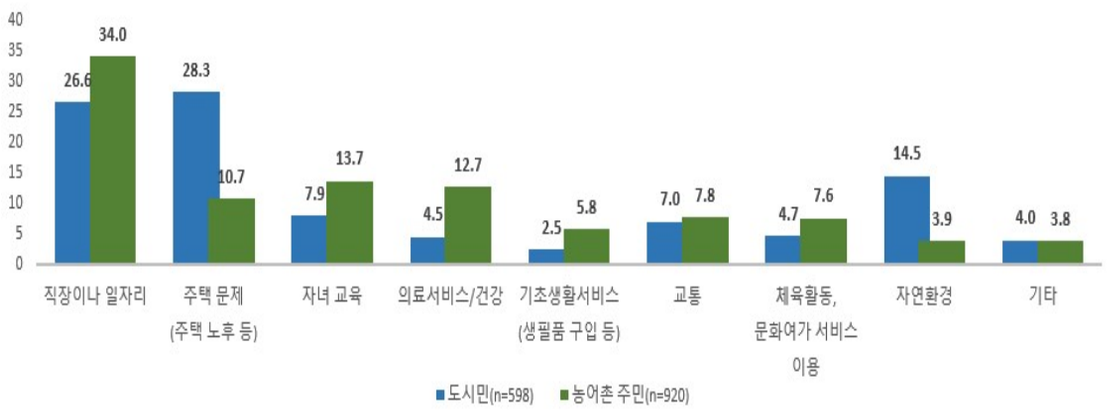
- 농어촌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주된 이유는 '직장이나 일자리 (때문에)'(34.0%), '자녀 교육 (때문에)'(13.7%), '의료서비스/건강 (때문에)'(12.7%) 순으로 나타남. '교통'(7.8%), '체육활동, 문화·여가 서비스 이용'(7.6%), '기초생활서비스(생필품 구입 등)'(5.8%)와 같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항목들을 꼽은 응답 비율도 도시민보다 각각 더 높았음. 따라서 직장이나 일자리를 제외하고도, 생활상의 불편함으로 인해 이주를 희망하는 농어촌 주민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이와 비교해 도시민이 이주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문제(주택 노후 등) (때문에)'(28.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도시 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직장이나 일자리 (때문에)'(26.6%)는 그다음으로 가장 많이 꼽혀, 농어촌 주민과

마찬가지로 이주를 희망하는 주된 동기가 됨을 알 수 있음. 특히, 도시민은 농어촌 주민과 달리 '자연환경 (때문에)'(14.5%)를 꼽은 비율도 높았음(농어촌 3.9%). 귀농·귀촌, 4도3촌, 반농반X 등 자연과 더 가까이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도시민의 선호가 드러난 결과로 추정할 수 있음.

그림 5 이주하려는 가장 큰 이유: 도농 비교(2024년)

단위: %



자료: 2024년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원 자료를 분석함.

2.4. 시사점

- 농어촌 주민이 거주 중인 지역에서 느끼는 행복감과 생활만족도는 대체로 도시민보다 더 큰 가운데, 도농 격차는 10년 전과 비교해 확대되었음. 이는 농어촌 주민 대비 도시민의 행복감과 생활만족도 점수가 더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임. 특히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도시민의 행복감과 생활만족도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농어촌 주민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 전국적인 전염병 유행 속에 저밀도·분산 거주, 자연친화적 환경 등 농어촌의 특성이 일종의 완충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됨.
- 농어촌 주민은 도시민과 비교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격차도 확대 추세임. 상대적으로 긴 정주 기간, 아직 더 많이 남아있는 공동체 문화 등 농어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됨. 실제 농어촌 주민은 도시민 대비 지역주민 간 교류가 더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농어촌에서 주민들의 유대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이 지역을 발전·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역할 할 가능성을 시사함.
-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 모두 이주 의향이 없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현재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행복감과 생활만족도 수준이 더 높고, 지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주민 교류도 더 활발하였음. 집단 간 격차는 농어촌 주민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는데, 특히 주민 교류에 대한 격차가 가장 컸음. 농어촌에 주민이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질의 주민 교류를 강화·촉진하는 일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 중 직장·일자리를 제외하고, 농어촌 주민은 자녀 교육, 의료서비스, 교통 등을 꼽은 반면에 도시민은 주택 문제, 자연환경 등을 주로 응답함. 이는 농어촌 주민이 더 나은 생활 여건을 찾아 이주를 희망하는 반면, 도시민은 더 저렴한 주택과 건강한 환경을 위해 이주를 결심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현재 농어촌에 거주 중인 주민의 유출을 예방하는 동시에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확충은 물론 생활 여건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알 수 있음.

03

삶의 질 4대 부문 만족도 도농 비교

3.1. 삶의 질 4대 부문별 만족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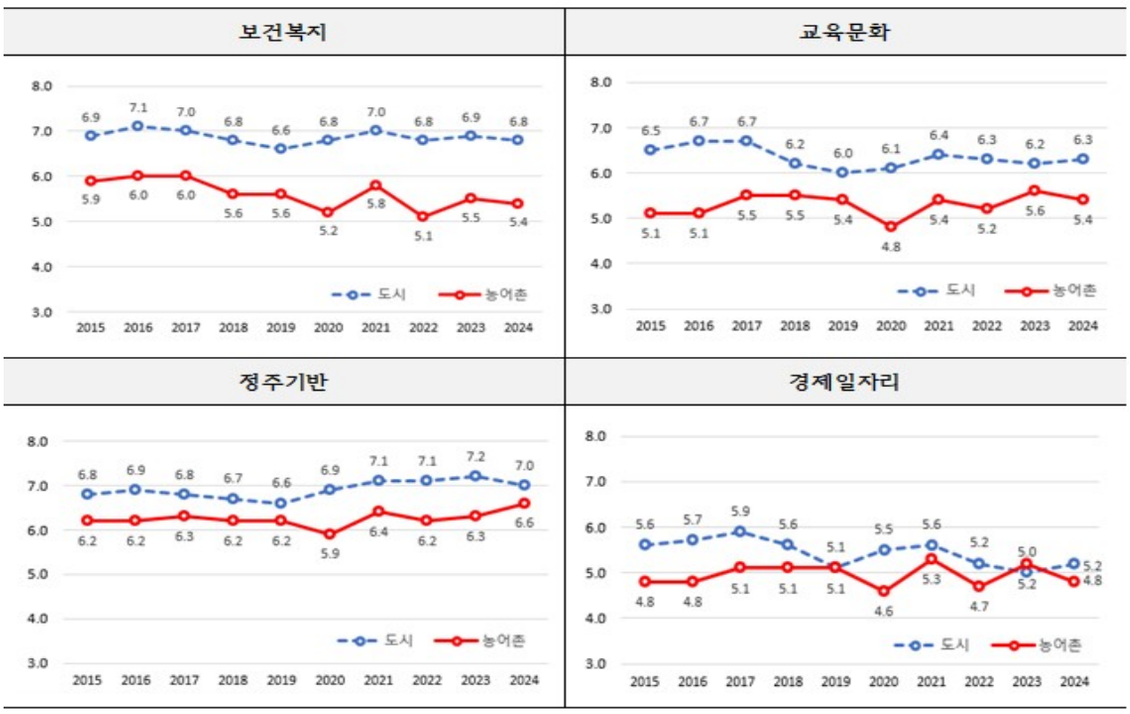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모두 대체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도시민보다 저조

- 지난 10년간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의 만족도 격차가 가장 좁혀지지 않는 영역은 보건복지 부문으로 나타남.
  - 2024년 기준 '보건·복지' 부문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는 5.4점(도시민 6.8점)으로, 10년 전의 5.9점(도시민 6.9점)과 비교해 감소함. 특히 2017년에 6점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코로나19 유행 이후 2021년 반짝 상승에도 회복하지 못함. 같은 기간 도농 간 격차는 1.0점(2015년) → 1.4점(2024년)으로 확대되었음. 이는 다른 부문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도시와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이와 비교해 '교육·문화' 부문에 대한 만족도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최하점인 4.8점을 기록한 후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기준 만족도 점수는 보건·복지 부문과 동일한 5.4점(도시민 6.3점)으로, 지난 10년 동안 줄곧 6점대를 유지하고 있는 도시민의 만족도와 비교해 낮은 수준임. 다만, 2024년 기준 도농 간 격차는 10년 전과 비교해 감소함(1.4점 → 0.9점).
  - '정주기반'은 삶의 질 4대 부문 가운데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음. 특히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상승세도 가장 뚜렷하고(5.9점 → '24년 6.6점), 같은 기간 도시민과의 격차도 감소함(1.0점 → 0.4점). 도시가스 , 상·하수도 보급 등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프라 개선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됨.
  - '경제·일자리'는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 모두 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임. 대체로 도시민이 농어촌 주민보다 더 큰 만족감을 나타내었으나, 등락을 거듭하며 2023년 한 차례 역전되기도 하였음(농어촌 주민 5.2점, 도시민 5.0점). 하지만 2024년 기준 경제·일자리 부문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는 4.8점으로, 보통 수준(5점)에도 도달하지 못함(도시민 5.2점). 따라서 10년 전과 비교해 도농 간 격차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0.8점 → 0.4점), 절대적인 만족도 수치가 낮은 만큼 개선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1) '제4차(2020~202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4대 부문 전략(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을 수립하여 추진함. 여기에서 이러한 4대 부문을 중심으로 실태와 변화 추이를 살펴봄.

그림 6 삶의 질 4대 부문 만족도 추이: 도농 비교

단위: 점(0~10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3.2. 2024년 삶의 질 4대 부문별 만족도와 중요도 IPA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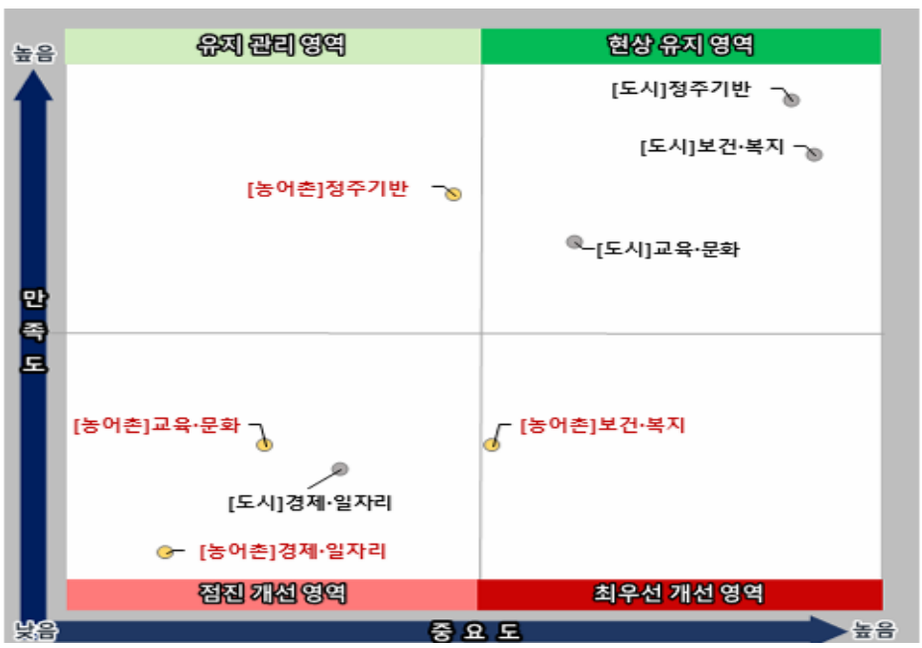
농어촌 지역에서는 삶의 질 4대 부문 중 3개 부문이 최우선 및 점진적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해당

-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2] 분석 결과, 농어촌 지역에서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 수준이 낮아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 부문은 보건·복지로 나타남.
  - 농어촌 주민이 인식하는 중요도가 높지만(6.8점) 만족도가 낮은(5.4점) '최우선 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은 보건·복지 부문이었음. 도시민에게 해당 영역이 중요도(7.2점)와 만족도(6.8점)가 모두 높은 '현상 유지 영역'에 포함된 것과 대조적임. 보건복지 부문의 중요성은 공통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농 간 서비스 이용 여건의 격차가 상당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됨.
  -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 모두에게 중요도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점진 개선 영역'에는 경제·일자리가 꼽혔음. 다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와 달리 교육·문화 역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문인 것으로 나타남.

2) IPA 분석은 특정 요소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를 각각 x와 y축으로 하는 2차원상의 평면 위에 좌표로 표현하는 분석 방법임.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어촌 정주민이 응답한 4대 영역별 중요도 및 만족도를 4대 영역 전체 중요도 및 만족도 평균값을 기준으로 나눈 사분면(현상 유지 영역, 유지 관리 영역, 점진 개선 영역, 최우선 개선 영역)에 표시함.

- 정주기반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민이 인식한 만족도가 높고 중요도가 낮은 '유지 관리 영역'에, 도시에서는 만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은 '현상 유지 영역'에 위치함. 도시에서는 교육·문화 역시 '현상 유지 영역'에 포함되었음.

그림 7 삶의 질 4대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IPA 분석(2024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 30),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3.3. 농어촌 주민 특성에 따른 2024년 삶의 질 4대 부문 만족도

정주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고령자의 만족 수준이 가장 저조해

- 보건·복지 부문 만족도는 대체로 모든 연령대에서 농림어업인이 다른 직업군과 비교해 가장 낮음.
  - 농림어업인의 보건·복지 부문 만족도 점수는 평균 5.15점으로,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종사자(5.6점), 기타(주부·학생·퇴직 등)(5.7점)와 비교해 낮았음. 특히 70대 이상 고령 농림어업인의 점수(4.9점)가 가장 낮았음.
- 교육·문화 부문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농림어업인의 만족도가 가장 떨어짐.
  - 농림어업인의 교육·문화 부문 만족도 점수는 4.6~5.2점으로,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종사자(5.1~5.7점), 기타(주부·학생·퇴직 등)(5.5~6.0점)와 비교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연령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70대 이상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그중에서도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70대 이상이 가장 낮았음(4.6점).

• 정주기반 부문에 대한 만족도는 청년층에서 가장 저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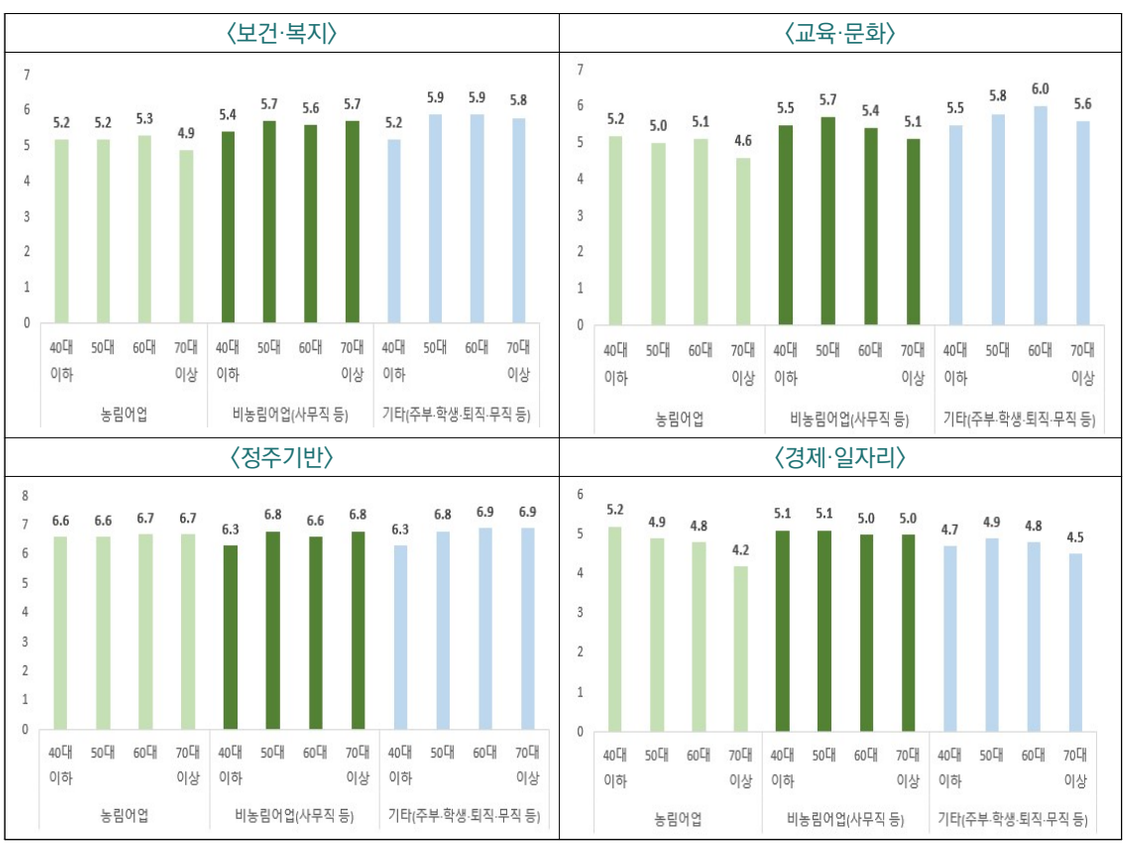
- 정주기반 만족도는 직업, 연령과 관계없이 6점 이상으로 다른 부문에 대한 만족도보다 더 높은 수준임. 다만 직업군과 관계없이 청년층이 가장 낮은 수준을, 70대 이상 고령층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이는 농어촌의 정주기반이 특히 청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청년층 농어촌 유입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음.

• 경제·일자리 부문 만족도는 비농림어업 종사자와 청년층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보통 수준에 머무름.

- 경제·일자리 부문에 대한 청년층의 만족 수준은 4.7~5.2점인 반면, 70대 이상 고령층의 만족 수준은 4.2~5.0점에 그침.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경제활동 기회와 소득이 감소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특히 고령층 가운데 비농림어업 종사자와 농림어업인의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각각 5.0점, 4.2점), 고령의 농림어업인이 체감하는 경제·일자리 부문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음.

그림 8 삶의 질 4대 부문 만족도: 농어촌 주민 특성별 비교

단위: 점(0~10점)



주: 농림어업인의 보건·복지 부문 만족도 평균은 '농어작업 안전성' 항목을 포함하여 계산함.
자료: 2024년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원 자료를 분석함.

3.4. 시사점

- ‘제4차(2020~2024년) 삶의 질 기본계획’의 4대 부문별(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농어촌 주민의 만족 수준은 도시민과 비교해 대체로 더 낮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음. 도농 격차가 가장 좁혀지지 않는 부문은 보건·복지로, 농어촌 주민이 평가하는 만족 수준의 하락세 역시 다른 부문과 비교해 가장 현저하였음. 이는 농어촌 주민이 체감하는 보건·복지 여건이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임. IPA 분석 결과에서도, 농어촌의 보건·복지 부문은 중요성이 높지만 만족도가 떨어져 최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경제·일자리의 경우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 모두 절대적인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으로 나타남. 정책적 개선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관심이 요구됨. IPA 분석 결과, 해당 영역은 유일하게 공통으로 농어촌과 도시 모두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분류되었음. 농어촌에서는 교육·문화 부문 역시 점진적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속하였음.
- 반면 정주기반은 삶의 질 4대 부문 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도농 간 격차도 감소함. 그동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프라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할 수 있음. IPA 분석 결과에서도 정주기반은 삶의 질 4대 부문 중 유일하게 농어촌에서도 개선이 아닌 유지·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분류되었음.
- 농어촌 주민의 특성(연령, 직업)에 따라 4대 부문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정주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70대 이상 고령 농림어업인의 만족 수준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남. 이들 집단이 농어촌 주민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생활 여건에 노출된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아울러 직업과 관계없이 모든 직업군에서 정주기반 부문에 대한 청년층의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청년층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추정됨.

04

삶의 질 4대 부문 만족도 읍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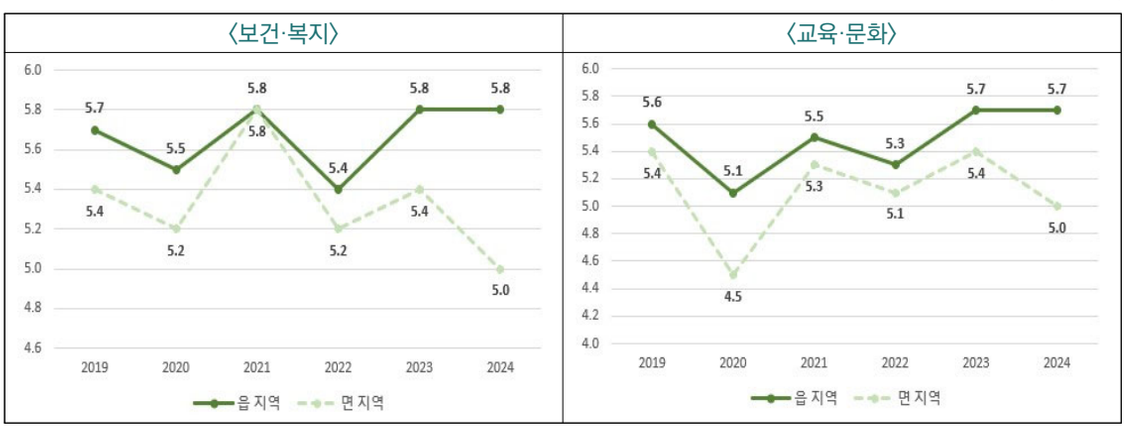
4.1. 삶의 질 4대 부문 만족도

면부는 읍부 대비 삶의 질 4대 부문 모두 만족도가 더 저조하며, 격차는 좁혀지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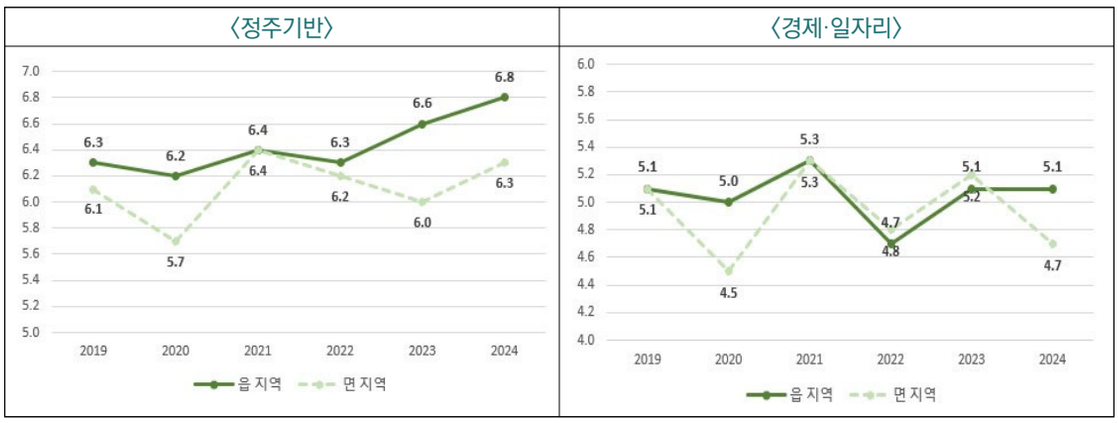
- 농어촌 지역 중에서도 면부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4대 부문의 여건은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보건·복지, 교육·문화 부문에서의 격차는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크게 벌어짐.
  - 2024년 기준 전체 삶의 질 4대 부문 만족도 점수 평균은 읍부 5.9점, 면부 5.3점으로 나타남. 읍면 간 격차가 가장 큰 부문은 '보건·복지'(읍 5.8점, 면 5.0점)와 '교육·문화'(읍 5.7점, 면 5.0점) 부문으로, 2019년 조사 이후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었음. 이는 읍부에서의 만족도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 면부에서의 만족도가 크게 하락한 데서 기인함.
  - 조사 시작 이후 읍면 모두 줄곧 가장 낮은 만족 수준을 드러낸 부문은 '경제·일자리'로, 2024년 기준면부의 만족 수준은 4.7점에 불과함(읍 5.1점). 다른 부문과 달리 2022년, 2023년 각각 면부의 만족도가 읍부의 만족도를 0.1점씩 초과하기도 하였으나, 2024년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읍부와 달리 면부의 만족도가 크게 하락하면서 열세로 돌아섬.
  - 반면에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문은 '정주기반'임. 유일하게 읍면 모두 6점 이상의 만족 수준을 보임(읍 6.8점, 면 6.3점). 시간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면 면부와 비교해 읍부에서의 상승세가 현저함.

그림 9 삶의 질 4대 부문 만족도: 읍면 비교

단위: 점(0~10점)



(계속)



주 1) 삶의 질 4대 부문 '읍면 비교' 항목은 2019년 신설됨.
2) '24년 기준 t-test 결과, 4대 부문 모두 읍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p<.00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4.2. 삶의 질 4대 부문 세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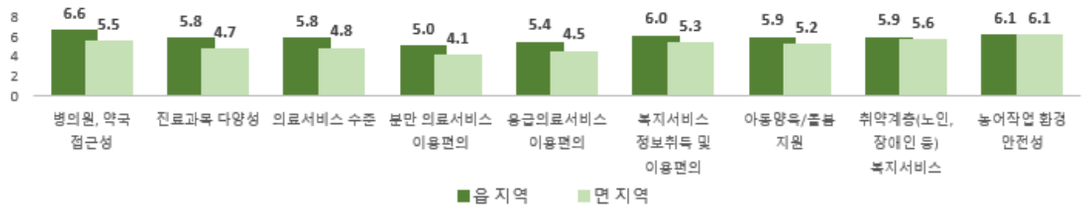
읍면 격차가 가장 두드러지는 영역은 보건·복지 부문으로, 면부는 특히 보건·의료 여건이 취약

• 보건·복지 부문 중에서도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범위에서의 읍면 격차가 가장 현저함.

- 세부 항목 중 만족 수준이 가장 떨어지는 항목은 '분만 의료서비스 이용편의'로, 읍부 5.0점, 면부 4.1점에 그침. 이는 저출생이 국가 전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은 정작 출산하기에 녹록지 않은 환경임을 시사함. '아동양육/돌봄 지원' 역시 만족도 점수는 읍면 모두 보통 수준에 머무름(읍 5.9점, 면 5.2점).
- '응급의료서비스 이용편의'(읍 5.4점, 면 4.5점), '진료과목 다양성'(읍 5.8점, 면 4.7점), '의료서비스 수준'(읍 5.8점, 면 4.8점)에 대해서도 면부 주민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5점)에 도달하지 못함(읍부 각각 5.8점). '병의원, 약국 접근성'의 경우 면부 주민의 만족도 점수는 5.5점으로 다른 의료서비스 관련 세부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읍부(6.6점)와의 격차(1.1점)가 가장 컸음.
- '복지서비스 정보취득 및 이용편의'(읍 6.0점, 면 5.3점), '취약계층 복지서비스'(읍 5.9점, 면 5.6점)와 같은 복지 항목은 의료서비스 항목과 비교해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읍면 모두 만족도 점수가 6점을 넘어선 유일한 항목은 '농어작업 환경 안전성'이었음(읍면 각각 6.1점).

그림 10 보건·복지 부문 세부 만족도: 읍면 비교

단위: 점(0~10점)



주: t-test 결과, '농어작업 안전성'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읍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p<.0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 43),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의 표를 재구성함.

교육·문화 부문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 수준이 낮은 항목은 '문화·여가' 관련 영역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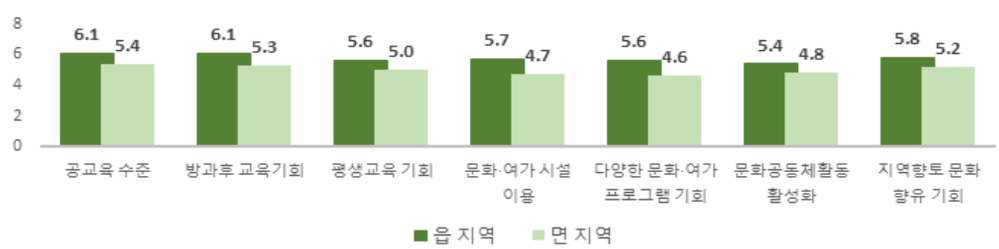
- 면부를 중심으로 지역 안에서 문화·여가를 향유 할 기회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우려됨.

  - 면부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보통 수준(5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항목에는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기회'(읍 5.6점, 면 4.6점),'문화·여가 시설 이용'(읍 5.7점, 면 4.7점), '문화공동체활동 활성화'(읍 5.4점, 면 4.8점)가 포함됨. 읍부와의 격차도 교육·문화 부문 세부 항목 중 가장 큰 1.0점으로 동일하였음. 농어촌 중에서도 면부는 주민의 문화·여가 관련 욕구를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추정됨.

  - 이와 비교해 교육 관련 항목은 읍면 모두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학령기 인구를 위한 '공교육 수준'(읍 6.1점, 면 5.4점), '방과후 교육기회'(읍 6.1점, 면 5.3점) 각각 면부 주민의 만족도가 더 저조하였음.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위한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함. '평생교육 기회' 또한 면부에서 만족 수준이 더 낮았음(읍 5.6점, 면 5.0점).

그림 11 교육·문화 부문 세부 만족도: 읍면 비교

단위: 점(0~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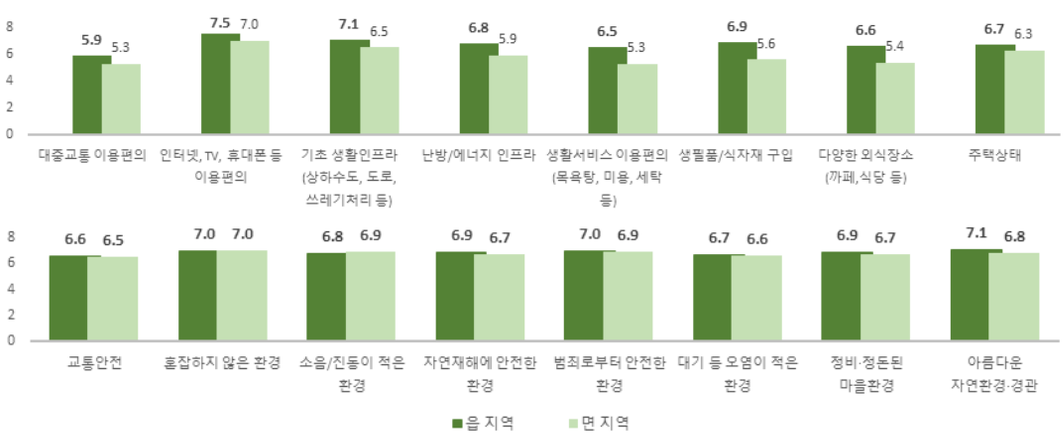
주: t-test 결과, 모든 문항에서 읍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p<0.0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 46),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의 표를 재구성함.

정주기반 부문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부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면부는 교통, 생활서비스, 생필품·식자재 구입 등 기초적인 생활 여건이 열악할 것으로 우려

- '대중교통 이용편의'는 읍면 모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항목으로(읍 5.9점, 면 5.3점), 고령자가 많은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동 시 더 큰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면부는 '생활서비스 이용편의'에 대한 만족 수준도 가장 낮아, 생활서비스 이용을 위한 타 지역으로의 이동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됨.
  - 읍면의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생필품/식자재 구입'(읍 6.9점, 면 5.6점), '다양한 외식장소'(읍 6.6점, 면 5.4점), '생활 서비스 이용편의'(읍 6.5점, 면 5.3점) 등의 순서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면부 주민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먹거리 등 아주 기본적인 측면에서부터 더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함.
  - 반면, '인터넷, TV, 휴대폰 등 이용편의', '난방/에너지 인프라'와 '아름다운 자연환경·경관', 안전 등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읍면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그림 12 정주기반 부문 세부 만족도: 읍면 비교

단위: 점(0~10점)



주: t-test 결과, '교통안전', '혼잡하지 않은 환경', '소음·진동이 적은 환경',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대기 등 오염이 적은 환경'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읍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p<.0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 49),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의 표를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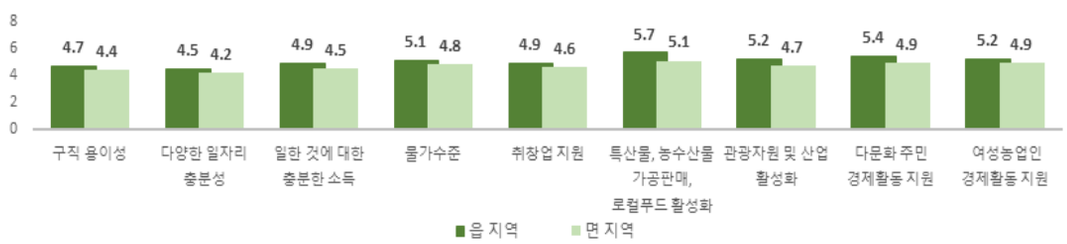
경제·일자리 부문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는 최저 수준으로, 면부가 특히 저조

- 읍면 모두 다양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충분히 확보할 것에 대한 요구가 가장 두드러짐.
  - 경제·일자리 부문의 세부 항목 중 가장 만족도 점수가 낮은 항목에는 다양한 일자리 및 일거리가 충분한지를 묻는 '다양한 일자리 충분성'(읍 4.5점, 면 4.2점),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직 용이성'(읍 4.7점, 면 4.4점) 등이 포함됨. 적지 않은 주민이 지역에서 다양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또한, 일한 것에 대해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일한 것에 대한 충분한 소득'에 만족(동의)하는 수준도 낮았음(읍 4.9점, 면 4.5점). 이는 농어촌 주민이 거주 중인 지역에서 적당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벌기 쉽지 않다고 인식함을 의미함.

그림 13 경제·일자리 부문 세부 만족도: 읍면 비교

단위: 점(0~10점)



주: t-test 결과, 모든 문항에서 읍면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p<0.0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 52),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의 표를 재구성함.

4.3. 시사점

- 도농 간 격차 못지않게 농어촌 내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관찰되었음. 구체적으로, 면부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4대 부문별 만족도는 읍부보다 모두 더 낮았음. 읍면 사이의 간극 또한 시간이 지나도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보건·복지, 교육·문화 부문은 최근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음.
- 보건복지 부문 중에서도, 병·의원, 약국 접근성, 진료과목 다양성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 수준에서 읍면 격차가 현저하였음. 면부는 의료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후기 고령자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체감하는 생활 여건이 더 열악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분만 의료서비스 이용편의에 대한 낮은 만족 수준을 고려한다면,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금도 농어촌에서는 출산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여건조차 적절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우려됨. 이에 주요 보건·복지서비스와 교통서비스의 연계, 인근 지자체 소재 병·의원 협력체계 구축·강화, 주민공동체 기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 적극적 대책이 요구됨.
- 면부는 읍부 대비 교육·문화에 대한 만족 수준도 더 저조하였음. 특히,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에 대한 점수가 모두 낮아, 면부에는 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교육 관련 항목들의 만족도 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면부의 경우 보통 수준(5점)에 머물렀음.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위한 이주를 촉진하지 않도록, 다양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ICT 기술 기반 교육·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 수요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교육·문화공간 조성 등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정주기반은 다른 부문과 비교해 읍면 모두 만족 수준이 가장 높은 영역으로 드러남. 그러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면부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편의, 생활서비스 이용편의, 생필품·식자재 구입 등에 대한 만족 수준이 저조해 기초적인 생활 편의시설이 적절히 갖추어지지 못한 것으로 우려됨. 지역 내 적절한 서비스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실질적인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 '찾아가는 서비스' 전달 방식 적용의 확산, 공공서비스 거점시설 조성 및 배후 마을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교통서비스 체계 구축, 지역맞춤형 모빌리티 프로그램 지원·개발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경제·일자리는 동 조사가 이루어진 이래 읍면 모두에서 꾸준히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부문에 해당함. 그중에서도 지역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를 찾는 일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자신이 일한 것에 응당한 소득을 받고 있다는 응답도 저조해, 농어촌에서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벌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농어촌에 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 어메니티 기반 서비스산업 육성과 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 개선, 지역에 특화된 벤처·창업 지원 확대, 도시와의 교류 확대 및 생활 인구 유입 촉진 등 다양한 노력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